

“노후환경·도시 재생 국비유도”

인프라 투자정책 발굴 토론회

국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건설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14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20.2%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국가 투자가 절실한 도내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임에도 지난 10년간 도내 토목 부문 수주액은 연평균 1.6%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라며 “올림픽 이후 대규모 SOC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지역별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건설산업이 흔들릴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14일 강원연구원에서 ‘강원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연구’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협 도회 업계 활성화 모색 지역별 핵심인프라 구축 제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실수요자들을 대비한 정주환경(주거시설, 일반 상하수도 시설, 도로 포장 등) 개선과 노후화된 도시 재생사업 등 지역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인철 회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올바른 투자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맞춤형 건설 인프라를 발굴과 동시에 국가 투자 유도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주관했다. 오인철 회장, 박길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 이희주 도 지역도시과장, 김명식 도 도로철도과장,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장,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재규기자

도내 9월 건설수주액 4,983억 ... 지난해보다 150% 늘어나

평창동계올림픽 효과로 도내 건설업계가 활황을 띠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9월 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건설수주액은 4,983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 1,995억원보다 149.

6% 증액됐다. 8월 대비 133억원 늘었다. 각종 신축 건물 투자 활성화가 수주액 상승세를 이끌었다. 발주자별 민간 부문에서 신규 주택, 공장·창고 수주가 188.6% 올랐다. 또 공중별 건축 부문에서는 주택, 학교·병

원, 관공서, 연구소 등의 투자 호황으로 197.5% 오름폭을 기록했다.

도내 부동산업계는 수도권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막바지에 접어든 올림픽 SOC사업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윤중현기자 jong@

부고

▲김대식(대건 회장)·대호(춘천상공회의소 회장)·대건 대표이사)·윤희·창희씨 모친(박귀숙씨)상, 김용수(가천대 교수)·성승식(티웨이항공 기장)씨 장모상=14일 오전 9시40분 별세. △발인=16일 오전 7시 △장지=경춘공원묘원 △빈소=호반장례식장 특1호실 △

연락처=010-5361-0165

▲김미영(미국 LA 거주)·규원(자영업)·도학(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신문홍보1팀장)·성훈(영화감독)씨 모친(김현숙씨)상, 장이한(LA 거주)씨 빙모상=14일 오전 10시 별세. △발인=16일 오전 △장지=미정 △빈소=강릉아산병원 장례식장 1층 102호실 △ 연락처=(033)610-5982 ~

도내 공공재 인프라 개선예산 감소 되나

도건설시설물 노후화 심각수준
내년 도로투자 올해보다 9.8%↓
“건설예산 감축땀 도민복지 저하”

강원 노후도로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도 건설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내 공공재 인프라 개선예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

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지역 일반도로 1946km(중 길이) 중 1309km(67.3%)가 내구연한(11년 이상)을 초과하는 등 도내 일반도로 상당수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60.1%)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도내 도로포장률도 75.5%로 전국 평균 85.3%를 밑돌면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 정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생활시설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도내 노후주택비

율은 48.7%로 전국평균 43.8%를 웃돌았다.

도내 주택 56만9899가구 중 27만7684가구가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도내 가구 절반 가량이 노후주택에서 사는 셈이다. 도내 상수도 노후화도 심각하다. 2015년 기준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0%로 전국평균 누수율 10.9%의 두배 가까이 상회,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단수와 누수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내 공공재 건설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프라 관련 사업현황 조사결과, 내년 계획된 도로 투자예산은 1311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투자예산 1454억원보다 9.8%(1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2021년에는 836억원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원도는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일 때가 아니다”며 “건설예산 감소는 도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부음

◆박귀숙(90)씨 별세, 김대식(주식회사 대건 회장)·대호(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 회장)·윤희·창희씨 모친상, 김용수(가천대 교수)·성승식(티웨이항공) 장모상= 14일 별세 △빈소 춘천호반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경춘공원묘원 △연락처 010-5363-4481

건협 강원도회, 강원지역 인프라 투자정책 자문회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11일 강원연구원 회의실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강원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인프라 관련 강원도 간부 공무원과 학계,

업계, 건설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오인철 회장이 맡았다.

자문회의는 강원지역의 인프라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별 필요에 맞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굴해 이를 지역 및 범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與野, 예산 정국 본격화... SOC 증액 관심 집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어 429조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베푸는 야당과의 치열한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예정된 조정소위에선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부터 이뤄졌다. 전날까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끝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감액 없이 2조3320억5000만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5594억원), 고속도로·국도 건설(4984억원),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3405억원)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여야 간 줄다리기에 SOC 예산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정무·운영·여성가족위원회 등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로 넘기기 위한 예산안을 논의했다.

한편 예결소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을 마쳐야 하며,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채희찬기자 chc@